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장경호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유바다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 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김태웅

청일전쟁 전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한동훈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권의석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장경호**

〈목 차〉

머리말

I. 뉴욕 언론의 동학농민혁명 보도와 왜곡된 시선

II. 뉴욕 언론의 보도와 내용적 특질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뉴욕 언론지에서 보도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국 언론에서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미 국무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란, 폭동 정도로만 치부하였다. 하지만, 뉴욕 언론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총 24건을 보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언론보도를 한 뉴욕 언론지는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강원전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833년에 창간한 『The Sun』이었다. 제임스 크릴만과 오스트리아의 에른스트 폰-헤세를 제외하고는 작성자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로 동학에 대한 인식은 미국무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1904년 4월 10일 『The Sun』이 동학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동학은 마을 사람들을 약탈하고, 일본인을 죽였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있었다.

청일전쟁과 관련된 기사는 21건 확인된다. 전쟁 이전에는 조미관계와 관련된 보도를 주로 하였으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전황을 보고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다. 대체로 요코하마발 기사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상해발 기사들은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 기사들이 각각 보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반란, 폭동, 뉴욕 언론지, 『The Sun』

머리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조약체결의 제1항 거중조정(Good Offices)에는 “만약 다른 나라가 어떤 불공정하거나 경멸하는 일을 일으키면 통지를 거쳐 반드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치하여 우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초대 주한미국공사 루시우스 푸트(Lucius H. Foote)는 “미국은 조선과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이며, 조선에서 가장 늦게 떠날 나라가 될 것이다”¹⁾라고 하며 상호 국가 간의 신뢰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국의 거중조정과 미국 공사의 언급은 고종으로 하여금 미국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등 당시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자, 고종은 자신의 친족에 이어 본인까지도 미국공사관으로의 피신을 시도할 정도로 미국에 의지했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개입을 꺼렸던 미국은 이를 우회적으로 거부

1) FRUS, Korea, No.231. Mr. Foote to Mr. Frelinghuysen, 1894.12.17., p.33.

하였다.

한편 미 국무부에서는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 조선의 거중조정 요청을 거부하게 된 배경, 청일전쟁기의 대한정책을 분석한 연구들²⁾이 확인되어 주목을 요한다.

다만,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없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문서에 반란(in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몇 건 나오는 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한미국공사 쉴(John M. B. Sill)은 그레샴 국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문서에 “농민이 힘을 얻고 있고, 조선이 그것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으니, 미국의 이권과 조선에서 미국인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함대 파견이 시급하다”³⁾고 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청과 일본의 군사파견으로 인해 조선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⁴⁾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미국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단지 이로 인한 조선 정세의 변화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미청국공사 양유가 그레샴에게 청일전쟁의 배경을 설명하며, 동학농민혁명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레샴은 “반란(insurrection)이 이미 진압되었으니, 일본이 철병해야 한다”⁶⁾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미국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단지 ‘반란’ 정도로만 인식

2) 김원모, 1974, 『美國의 對韓 居中調停(1882~1905)』, 『사학지』 8, 19~67쪽; 이민식, 1992, 『미국의 對朝鮮 親日政策의 출현 -청일전쟁기를 중심으로』, 『사총』 40·41합집, 79~110쪽; 이민식, 1994, 「19세기 말 한미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4~106쪽; 김현철, 2002, 「청일전쟁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분석 -공사관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 47, 149~179쪽.

3) FRUS, Chinese-Japanese war, Mr Sill to Mr. Gresham, 1894.6.1., pp.18~19.

4) FRUS, Chinese-Japanese war, Mr. Sill to Mr. Uhl 1894.6.24., p.22.

5) FRUS, China, Mr. Yang Yu to Mr. Gresham, 1894.9.22.

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3, (16)[朝鮮의 內政改革과 撤兵에 대한 美國政府의 勸告], 美合衆國 特命全權公 使→外務大臣 陸奧宗光 第52號, 1894년 7월 9일; 문일평, 2016, 『한미오십년사』, 탐구당, 268~269쪽.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 기자와 선교사들은 동학과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비온티노 유리안은 서양인 기자, 선교사, 학자, 외교관, 여행가들의 저서를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학인식을 살펴보고,⁷⁾ 미국 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다양한 신문들을 통해 이 신문들이 청일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⁸⁾ 하지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언론의 동학 및 청일전쟁 인식을 바라보아 지방 언론의 인식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뉴욕 언론은 The NYS Historic Newspapers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욕 내 각 언론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보도한 뉴욕언론지는 『Buffalo Evening News』, 『Gouverneur Free Press』, 『Lockport Daily Journal』, 『Oneonta Daily Star』, 『Plattsburgh Daily Press』, 『Utica Daily Press』, 『The Argus』, 『The Brooklyn Daily Eagle』, 『The Daily Palladium』, 『The Evening Journal』, 『The Evening World』,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The Lockport Journal』, 『The Mechanicville Mercury』, 『The Ocean Herald』, 『The Ogdensburg Journal』, 『The Sun』, 『The Watertown Times』, 『The Utica Observer』 등 이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관련 인식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된다. 1830년대부터 신문 연간 구독비가 점차 줄어들고, 발행 부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뉴욕은 대외 지식이 들어오는 중심지 였기 때문에, 뉴욕 언론

7)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동학학보』 28, 483~533쪽.

8) 비온티노 유리안,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175~210쪽.

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인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해당 언론에 의한 연구는 주로 홍종규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임오군란 및 신미양요에 대한 뉴욕 언론의 기사들의 수치적 분석과 기사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⁹⁾ 이 연구는 뉴욕 지역 언론의 한국 관련 인식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것으로 의의가 있지만, 청일전쟁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일전쟁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보도한 뉴욕 언론지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 언론지가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I. 뉴욕 언론의 동학농민혁명 보도와 왜곡된 시선

1. 동학농민혁명을 보도한 뉴욕 언론

뉴욕 언론에서는 조선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이에 대하여 일제히 보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홍종규, 김남현, 2018, 「19세기(1810~1871) 미국 뉴욕 언론을 통해 본 조선의 이미지」, 『강원사학』 31, 137~163쪽; 홍종규, 2023, 「미국 신문의 조선에 대한 인식-조미수호통상조약과 임오군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159~183쪽.

〈표 1〉 뉴욕 언론의 동학 관련 기사 목록

	언론	날짜	기사 제목
1	『Buffalo Evening News』	1894년 06월 07일	Insurrection in Corea
2	『The Utica Observer』	1894년 06월 07일	Insurrection in Corea
3	『The sun』	1894년 06월 07일	The Revolt in Korea
4	『The sun』	1894년 09월 09일	Corea's Military System
5	『Gouverneur Free Press』	1894년 09월 19일	Koreans repel Japan
6	『Lockport Daily Journal』	1894년 10월 20일	Coreans Rebel
7	『The Argus』	1894년 10월 23일	Seoul's Red Spot
8	『The Sun』	1894년 11월 11일	A report that the Big Naval station has been captured
9	『The Evening Journal』	1894년 11월 28일	Japanese Defeats Tonghaks
10	『The Evening World』	1894년 11월 28일	A golden Harvest
11	『The Evening World』	1894년 12월 3일	Corea's King Talks The World Correspondent Asked to Send an Appeal.
12	『Plattsburgh Daily Press』	1894년 12월 26일	The Tonghak Rebellion
13	『Plattsburgh Daily Press』	1894년 12월 27일	The Tonghak Rebellion
14	『Utica Daily Press』	1894년 12월 28일	Adviser to China
15	『Oneonta Daily Star』	1895년 01월 09일	The King of Korea Declares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Three of the Leaders of the Tonghak Rebels Seized and Beheaded
16	『Utica Daily Press』	1895년 01월 14일	Desolation of War
17	『The Sun』	1896년 01월 26일	Some New Books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18	『The Sun』	1903년 12월 24일	Warships Ready to Start

	언론	날짜	기사 제목
19	『The Sun』	1904년 01월 22일	Japan to Issue A Loan
20	『The Ogdensburg Journal』	1904년 04월 08일	New Korean Minister to Japan
21	『The Sun』	1904년 04월 10일	The Tong Haks Corea
22	『Utica Daily Press』	1904년 05월 16일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23	『The Daily Palladium』	1904년 05월 16일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24	『The Lockport Journal』	1904년 05월 16일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동학농민혁명 관련 보도는 총 24회가 확인되는데,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언론은 『The Sun』으로 총 7회였다. 그 밖에 2회 이상 보도가 된 언론은 『Utica Daily Press』 3회, 『The Evening World』, 『Plattsburgh Daily Press』 2회다.

이 중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한국 관련 기사를 다수 보도한 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Sun』은 1833년에 창간하여 1950년까지 존속한 언론지다. 삽화, 범죄보도로 주로 노동자 층이 많이 구독하였다. 해당 신문은 선정적인 기사를 양산해 신문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전략을 가진 언론으로 동학농민혁명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도 다수 보도했던 언론이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Utica Daily Press』는 1882년에 창간하여 1969년까지 존속하였던 언론지다. 『The Evening World』는 1887년 창간되어 1931년까지 존속된 언론지다.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890년대 중반에는 34만 부가 발간되었다. 『Plattsburgh Daily Press』는 청일전쟁이 종전되던 1895년에 발간된 신문으로 1942년까지 존속하였다.

다음으로 『Buffalo Evening News』, 『The Utica Observer』, 『Gouverneur Free Press』, 『Lockport Daily Journal』, 『The Argus』, 『The Evening Journal』, 『Oneonta Daily Star』, 『The Ogdensburg

Journal』, 『The Daily Palladium』, 『The Lockport Journal』 각 1회다.

뉴욕 언론지의 보도 양상을 살펴보면 조선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학농민혁명이나 청일전쟁과 같은 국제정세를 비중있게 다룬 언론도 따로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왜곡 보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보도에 대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1894년 6월 『Buffalo Evening News』, 『The Utica Observer』 등인데, 샌프란시스코발 기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보도하였다.

조선에 소식에 의하면,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반군(The rebels)은 주로 Chinese doctrines를 고수하고 서양 사상과 교류를 반대하는 당이다. 반군의 지도자는 Sai Ji Kyo 한 명이며 그의 추종자 수는 6만 명이다. 관군을 무찌르고 여러 관리들을 죽인 반군(insurgents)은 많은 용기를 얻었고 큰 명성을 얻었다. 증기선 3척과 중국 군함 1척이 이미 한반도 남단에 있는 소요 현장으로 800명의 병력과 80만 발의 탄약을 수송했다.”¹⁰⁾

당시 청군이 출발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이 기사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성 점령을 전후한 제1차 봉기의 시점에서 나온 기사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이 중국 사상(Chinese doctrines)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서양 교류를 반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Si Ji Kyo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The Sun』에서도 6월 7일 상기 두 언론과는 다른 제목(The Revolt in Korea)의 기사를 상하이발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10) “Insurrection in Corea” 『Buffalo Evening News』 7 June 1894; 『The Utica Observer』 7 June 1894.

그곳의 반란(rebellion)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텐진에서 외국 장교가 훈련하고 지휘하는 청군 2,000명이 파견되었다. 해밀턴 항에 있는 영국 함대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5만 명이 넘는 조선 반란군(Corean insurgents)은 전라 지역의 군대를 격파하고 외국인 추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반란군(The Rebels)에게는 무기와 식량이 잘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공식 창고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역자 주: 관원)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지도자는 몇 년 전에 비슷하지만 실패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관군이 중국 군함 3척을 타고 문제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척은 중국 군함이다.¹¹⁾

『The Sun』은 상기한 두 언론과는 달리 청나라 측의 군대 파견과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규모에 대해 두 언론이 6만 명이라고 한 것에 비해, 5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청군이 파견되었다는 점, 동학농민군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 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보도하였다.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10월 20일 『Lockport Daily Journal』은 다음과 같이 전황에 대해 보고했다.

조선인들(동학도)은 반란(rebel)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본의 통치 아래서 불안해한다. 관군과 일본인(일본군)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런던 10월 20일, <더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는 코리아의 서남쪽 끝 전라도 지방에서 수백 명의 조선인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인과 일본군이 연합군을 파견했다는 요코하마발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조선인들은 일본군의 확고한 역할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¹²⁾

11) "The Revolt in Korea" 『The Sun』 7 June 1894.

12) "Coreans Rebel" 『Lockport Daily Journal』 20 October 1894.

요코하마발을 통해 전해진 해당 언론에서는 일본의 파병과 그 역할을 강조하였고, “조선인들(동학도)들이 일본군의 역할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였다.

『The Sun』에 기고한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Ernst Von Hesse Wartegg)¹³⁾의 글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왜 고종이 자국의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청나라에 보호를 요청했는지 의아했다”고 하면서 한국의 군사 시스템이 낙후되어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이 파견되지 못하고 청군이 파견되었다는 점을 기고했다.¹⁴⁾

9~10월 기사는 위의 두 기사를 제외하고, 단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9월 『Gouverneur Free Press』에서는 “2,000명의 군인이 인근에 모여 있는 동학동민군의 무력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착했다”¹⁵⁾ 10월 『The Evening Star』에서는 청일전쟁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다수의 동학도들이 수도인 서울을 위협했다”¹⁶⁾ 『The Argus』에서는 “홍선대원군이 동학농민혁명군과 연루되었다”¹⁷⁾ 11월 『The Sun』에서는 “11월 9일 부산에서 보낸 전보에 따르면 일본이 동학 반란을 완전히 진압했다”¹⁸⁾ 12월 『Utica Daily Press』는 “고베의 타임즈 특파원은 해병대를 거느린 츠쿠바(Tusubka Kane)가 동학농민군(rebels로 표현)을 해산시켰다”¹⁹⁾고 각각 보도했다.

13) 1854년 2월 21일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술가로 1894년 한국에 있으며 조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남겼고, 1895년에 독일에서 이를 출간하였다. 해당 기사에 기고한 한국 군대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지음, 정현규 옮김, 2012, 『조선, 1894년 여름』, 책과함께, 145~152쪽에도 보인다.

14) “Corea’s Military System” 『The Sun』 9 September 1894.

15) “Koreans repel Japan” 『Gouverneur Free Press』 19 September 1894.

16) “That Yalu Battle” 『The Evening World』 20 October 1894.

17) “Seoul’s Red Spot” 『The Argus』 23 October 1894

18) “A report that the Big Naval station has been captured” 『The Sun』 11 November 1894.

1894년 12월 26일에 가서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단독 기사가 보도되었다. 『Plattsburgh Daily Press』는 동학(TongHak)에 대해 한 단락으로 단독 보도했다. 이 언론은 요코하마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동학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도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동학(Tonghak)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학도들은 지방의 수도를 점령했다. 그들은 지방관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동학도 중 한 명을 임명했다. 조선 남부 지역 세 마을이 동학에 의해 불태워졌다. 호랑이 사냥꾼(역자 주: 포수)들로부터 다시 지원을 받고 있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²⁰⁾

1894년 12월 이전까지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기사들은 Rebel, insurrection 등으로 보도한 반면, 『Plattsburgh Daily Press』에서는 동학(Tonghak)이라고 보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지만,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한 반란으로 치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관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동학도를 임명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가 확인된다.

『The Sun』은 새로 발간된 책 『청일전쟁』(『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을 소개하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청일전쟁』에서 동학에 대해 ‘로마 카톨릭 및 외국인에 대한 조직적 반동주의’로 소개하고 있고, 1894년 5월 반란(insurrection)은 남부 3도에 널리 퍼져있었고, 한국에서만 3만 명이 넘는 동학교도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을 밝혔다²¹⁾ 언급했다.

『The Evening Journal』은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재인용하여 “1894

19) “Adviser to China” 『Utica Daily Press』 28 December 1894.

20) “The Tonghak Rebellion” 『Plattsburgh Daily Press』 27 December 1894.

21) “Some New Books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The Sun』 26 Jan 1896.

년 11월 28일 동학교도들이 공주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일본은 동학군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동학군은 전적으로 학살당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중 두 명이 죽임을 당했다”²²⁾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기사는 뉴욕타임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²³⁾ 같은 날 『The Evening World』에는 미국 뉴욕 월드신문 특파통신원 제임스 크릴만(James Creelman)²⁴⁾ 작성한 글을 보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의 의견을 담고 있는데, “고종이 더 결연한 인물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을테지만, 고종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한편, 이 나라에 동학(Tong hoks)이 그들의 평등 사상(doctrine of equality)을 전파하고, 정부를 해체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학사상이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임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²⁵⁾

한국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동학농민혁명을 언급한 것은 1894년 12월 3일 『The Evening World』에서 확인된다. 이 역시 제임스 크릴만(James Creelman)²⁶⁾이 작성한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크릴만이 단독으로 보낸 기사다. 이 기사에는 ‘고

22) “Japanese Defeats Tonghaks” 『The Evening Journal』 5 December 1894.

23) 비온티노 유리안, 앞의 논문 참조.

24) 제임스 크릴만은 1859년 11월 12일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이다. 청일전쟁 당시 기자로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측에서도 크릴만이 동경의 미국인 하우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일본 정부가 조선에 행하고 있는 것이 해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전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 기록』 권2, 機密送第78號, 外務大臣 子爵 陸奥宗光→在朝鮮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141쪽).

25) “A golden Harvest” 『The Evening world』 28 Nov 1894.

26) 제임스 크릴만은 1859년 11월 12일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이다. 청일전쟁 당시 기자로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측에서도 크릴만이 동경의 미국인 하우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일본 정부가 조선에 행하고 있는 것이 해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전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 기록』 권2, 機密送第78號, 外務大臣 子爵 陸奥宗光→在朝鮮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141쪽).

종이 세계 특파원과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당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 고종을 위협하는 요소로 흥선대원군의 존재를 들었고, “흥선대원군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고, 남접의 대동학 운동은 흥선대원군이 동학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을 얻었다”고 판단하면서 동학과 흥선대원군 간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²⁷⁾

1895년 1월 『Oneonta Daily Star』에서는 한국이 ancestral temple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다고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지도자 3명을 체포하였다. 동학은 한국 군인에 의해 추격을 받았고, 그 결과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도망쳤다”고 전했다.²⁸⁾ 또한 『Utica Daily Press』에서는 도쿄 중앙 뉴스 소식통을 인용하여 “츠쿠바의 보고에 의하면, 전라도 동학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체포된 첩자는 반란군 수괴와 40여 명을 참수함으로써 항복의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종과 조선은 분열이 일어났다고 선언한 동학 포로들을 조사하고, 일본 수병들과 한국 관군이 그들을 공격하여 완전히 겁에 질리게 했다”²⁹⁾라고 하면서 일본 측에 유리한 보도를 하였다.

1903년 『The sun』에서는 한국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하였다. 반란(Rebellion)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파견될 예정이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직후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반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³⁰⁾ 밝혔다.

1904년까지 동학 관련 보도는 이어졌다. 『The Lockport Journal』,

27) “Corea’s King Talks The World Correspondent Asked to Send an Appeal.” 『The Evening World』 3 December 1894.

28) “The King of Korea Declares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Three of the Leaders of the Tonghak Rebels Seized and Beheaded” 『Oneonta Daily Star』 9 January 1895.

29) “Desolation of War” 『Utica Daily Press』 14 January 1895.

30) “Warships Ready to Start” 『The Sun』 24 December 1903.

『The Daily Palladium』, 『Utica Daily Press』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4명이 전주에서 처형되었다고³¹⁾ 일제히 보도했다. 한편, 『The Sun』에서는 1월에 “다양한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은 혼란해지고 있다. 동학 봉기(Tonghak rising)은 일반적으로 정부를 향한 것이다. 고종은 러시아에게 경호병을 요청했다고 한다”고 했고, “한국 남부의 반란이 심각하다. 이는 세금징수관들의 갈취에 기인한 것으로 현지 일본인들이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³²⁾ 이어 4월에는 『An Excellent Tale of Corea』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간단히 소개하였고,³³⁾ 『The Ogdensburg Journal』은 “평양 인근에서 해산한 동학군과 연계해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상습적인 소요에 불과하며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보고 있다”³⁴⁾고 한 바 있다. 4월 10일에는 동학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The Sun』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동학이 러일전쟁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약탈, 교리 논쟁, 학살을 일삼으며 나라를 뜨겁게 달구어 온 단체라고 설명하였다.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동학에 있다는 점,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만주지역에 진출했기 때문에 러·일간 각축이 진행되었고, 따라서 이로 인한 러일전쟁 역시 동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정적 기사를 내보냈다.

동학은 현재 강렬한 애국심에 의한 유일한 단체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협적이고, 지금은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지고, 지금은 강탈과 약탈을 일삼고, 지금은 싸우고, 서구의 사상과 동기, 방법으로는 거의 특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신학적 논쟁에 몰두하지 않는 세력이다.

31)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The Lockport Journal』 16 May 1904; 『The Daily Palladium』 16 May 1904; 『Utica Daily Press』 16 May 1904.

32) “Japan to Issue A Loan” 『The Sun』 22 January 1904.

33) 『The Sun』 23 April 1904.

34) “New Korean Minister to Japan” 『The Ogdensburg Journal』 8 April 1904.

동학은 종교의 성격, 형이상학적 논의, 학살, 그리고 공적 갈취(역자 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애국적 저항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³⁵⁾

이어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게 된 배경, 동학의 원리, 동학의 예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일전쟁으로 이어진 사건은 반란이었다.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수년 동안 하부 지방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행진하며 관아, 충, 탄약을 불태우고 일본인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창과 깃발을 들고 다녔다. 그들은 약탈하고 구타하기 전에 행군 도중 자주 멈춰 마을 주민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벌였다.

조선인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몰려들었다. 더 이상 질병도, 빛도, 총알도 물에 녹아 없어지고 농작물도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조선왕조의 500년이 곧 끝나고, 혁명의 때가 왔다는 예언에 더욱 자극을 받았다.

그렇게 서울로 진격하던 동학농민군은 소수의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고, 동학농민군은 물에 녹지 않는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를 본 관군은 도망쳤다. 마침내 반란군 몇 명이 붙잡혀 처형되었고 동학은 다시 사라지는 듯했다.³⁶⁾

또한 최제우의 죽음에 대한 교조신원운동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이어 “마을의 가옥 400채가 불에 탔고 지방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살인과 약탈의 길로 나섰다. 일본인들은 발견되

35) “The Tong Haks Corea” 『The Sun』 10 April 1904.

36) “The Tong Haks Corea” 『The Sun』 10 April 1904.

는 곳마다 공격당하고 살해당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로 인해 청일전쟁이 발발되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뉴욕 언론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 중에 가장 자세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최제우가 천주교 신자라서 처형당했다는 등 잘못된 정보와 동학농민군을 학살자로 묘사하고, 일본인이 학살당했다는 등의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시선은 일본발 기사에 영향을 받아 작성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1894년부터 1904년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청일전쟁기 전쟁의 발발을 제공한 Rebellion, insurrection 등으로 묘사되었을 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계층과 이들이 가진 이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보도는 이노우에를 인터뷰한 크릴만의 기사에서 동학이 ‘평등을 지향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만 있었고, 심층적 분석은 1904년에 가서야 있었는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괄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II. 뉴욕 언론의 보도와 내용적 특질

1. 청일전쟁을 보도한 뉴욕 언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뉴욕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뉴욕 언론의 청일전쟁 한국 관련 기사 목록

	언론	날짜	기사 제목
1	『The Sun』	1894년 6월 29일	Japan's Occupation of Corea
2	『The Sun』	1894년 07월 19일	Gresham's Intervention
3	『The Argus』	1894년 07월 22일	The War is On
4	『The Brooklyn Daily Eagle』	1894년 07월 22일	Japan and China May Fight

	언론	날짜	기사 제목
5	『The Daily Cataract』	1894년 07월 23일	War is Inevitable
6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1894년 07월 23일	War is Inevitable
7	『The Sun』	1894년 07월 24일	The War Could In Corea
8	『The Evening Post』	1894년 07월 27일	The Contest Over Corea
9	『The Evening World』	1894년 7월 27일	China Means To Win
10	『The Watertown Times』	1894년 07월 28일	China And Japan At War
11	『The Morning Post』	1894년 08월 01일	War Declared by Japan
12	『Lockport Daily Journal』	1894년 08월 18일	The War
13	『The Daily Cataract』	1894년 08월 18일	The Oriental War
14	『The Daily Cataract』	1894년 09월 05일	The Oriental War
15	『The Daily Cataract』	1894년 09월 12일	Corean-Japanese Treaty
16	『Lockport Daily Journal』	1894년 09월 20일	How Was It?
17	『The Mechanicville Mercury』	1894년 09월 21일	Great Battle
18	『The Daily Cataract』	1894년 09월 24일	Our Foreign Cables
19	『The Evening World』	1894년 11월 28일	England's Uneasiness
20	『The Sun』	1895년 09월 15일	Japan and China
21	『The Ocean Herald』	1897년 12월 27일	Japan favors China

위 중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The Brooklyn Daily Eagle』,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The Watertown Times』, 『The Mechanicville Mercury』, 『The Ocean Herald』 등이다. 『The Brooklyn Daily Eagle』은 1841년 발간되어 1955년 까지 존속한 언론지였고, 일간 발행부수가 가장 많았던 석간지이기도 했다.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은 1890년에 발간되어 1912년까지 존속했다. 그중 청일전쟁 전개 과정 속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지로는 『The Sun』(4회), 『The Daily Cataract』(4회)가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과 마찬가지로 청일전쟁과 조선의 상황을 보도한 뉴욕 언론들도 개별 언론마다 논조의 차이가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청일전쟁 관련 보도의 내용

청일전쟁 이전 뉴욕 언론들은 주로 조미 관계에 대해 보도하였다. 1894년 6월 29일 『The Sun』은 경복궁점령사건을 보도하고 한국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조선의 군사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도하였고, 고종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현 국왕이 본능적으로 미국을 친구로 삼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³⁷⁾ 7월 19일 미국무부장관 ‘그레샴의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하였는데, 2주 전에 조선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국회에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제목이었다. 기사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보호국화(a protectorate for corea)에 관한 중재자(arbitrator)가 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도하였고, 미국무부 그레샴이 『The Sun』의 대체적인 보도에 대해 가짜(a fake)라고 했다는 점과 미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혼란한 서울의 상황과 미국 함대 볼티모어 호의 제물포 정박과 동향에 대해 보도하였다.³⁸⁾ 23일 상하이 기사를 통해 청일전쟁의 전황을, 베를린 기사를 통해 유럽의 동향을, 런던 기사를 통해 청일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응(김벌리 국무장관의 청나라 및 일본 공사와의 회담 등)을 보도하였다.³⁹⁾

본격적으로 전쟁 관련 보도는 『The Argus』에서 시작했다. 이 언론은 ‘청나라와 일본이 국경선에 맞닿았고, 북쪽이 폐쇄되었다는 점’을 보도했다. 전쟁의 상황과 청나라 관내의 상황을 상하이 기사를 통해 보고

37) "Japan's Occupation of Corea" 『The Sun』 29 June 1894.

38) "Gresham's Intervention" 『The Sun』 19 July 1894.

39) "The War Could In Corea" 『The Evening Post』 27 July 1894.

했고, 요코하마 기사와 런던에서 작성된 기사를 인용하며 ‘조선이 일본의 개혁에 동의’했고, 미국과 영국의 해병대가 한국 내 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도착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⁴⁰⁾

7월 23일 『The Daily Cataract』는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제목 아래 두 개의 부제로 청은 조선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위해 싸울 것이고, 일본은 한국의 개혁을 주장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7월 23일 상하이 통신을 통하여 청은 계속해서 조선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할 준비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현재까지 유지해온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청의 전쟁 준비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다. 런던발 기사를 통해서도 청과 일본이 전쟁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고, 일본이 영국 공사의 중재를 거부했다는 내용과 요코하마발을 통해서도 “제안한 개혁을 받아들인 조선이 ‘일본이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조선이 이 조건을 내세운 것은 청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즉, 갑오개혁을 일본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⁴¹⁾

『The Johnstown Daily Republican』에서도 상하이발 기사를 내보냈는데, 『The Daily Cataract』의 기사와 내용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며, 여기에 고종의 이미지를 넣은 것이 특징적이다.⁴²⁾ 『The Brooklyn Daily Eagle』은 “전쟁이 임박했고, 천황이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은 개혁에 동의했다”는 부제로 런던, 상하이, 요코하마, 워싱턴발 기사들을 보도했다. 워싱턴 주미한국공사관에서 영어를 못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의 상황을 알 수 없고, 주일미국공사 던도 공식적인 소식을 듣지 못하여 청일전쟁과 관련된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전황에 대한 직접적 사실을 보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전하였고, 청나라와 일본 양국 간

40) “War is On” 『The Argus』 July 22 1894.

41) “War is Inevitable” 『The Daily Cataract』 23 July 1894.

42) “War is Inevitable” 『The Johnstown Daily Republican』 23 July 1894.

병력과 경제력의 수치를 비교했다.⁴³⁾

『The Evening Post』에서는 7월 27일 상하이 기사를 통하여 청일 전쟁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고, ‘한국과 관련된 청나라와 일본간의 다툼은 상당한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영국과 미국 전투함대의 각국 서울주재공사 관 보호를 위하여 파견될 가능성, 서울에서의 혼란한 상황 등을 보도하였고, 청나라 함대와 일본 함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무장한 함대는 얼마나 되며 어느정도의 무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보도하였다.⁴⁴⁾ 이어 런던, 요코하마, 상하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낸 4개 국가의 소식을 보도했다. 먼저, 8월 1일 런던 발 소식을 통해 청일전쟁의 개전 직후의 상황과 고승호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 상하이 언론을 통해서서는 Von Hannekin 대령이 고승호에 있다가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요코하마 언론을 통해서서는 “일본해군에 의해 진원(鎭遠, Chen Yuen) 혹은 고승호가 침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전갈이 도착했다. 1,500명 병력을 태운 수송선이 침몰했고, 청 함대가 나포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은 청군이 한국에 파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일본 관원들 사이의 메시지가 차단되었다”고 보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발을 통해서서는, ‘러시아 언론이 청일전쟁의 결과에 상관없이 조선 영토의 축소나 독립 소외를 용납하지 않을 것’ “러시아 정부가 태평양과 러시아-조선 국경에서 러시아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산된 군사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이는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 기사 보도했다.⁴⁵⁾

43) “Japan and China May Fight” 『The Brooklyn Daily Eagle』 22 July 1984.

44) “The Contest Over Corea” 『The Evening Post』 27 July 1894.

45) “War Declared by Japan” 『The Evening Post』 8 August 1894.

『The Watertown Times』에서도 ‘루머가 확정되었다’, ‘두 국가는 서둘러 준비, 런던은 청나라 승리 예상, 프랑스-독일은 평화 유지’라는 부제로 런던 발 기사를 인용하여 이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의견을 전했다. 상하이 7월 28일자 발을 통해서 전쟁 준비 상황과 청나라 관원들의 입장을 살폈고, 청나라 내에 유럽인들의 동향 등을 보도했다.⁴⁶⁾

『LockPort Daily Journal』과 『The Daily Cataract』에서는 ‘일본이 육지와 바다에서 공격적’이라는 부제 하에 빅토리아 B.C발을 통해서 초기 전황을 보고하였다.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7월 27일 갑신정변 관련 5명의 주요 인물을 사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통해 한국이 청나라와 연결된 모든 것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보도하였다. 8월 18일 런던발을 통해 상하이에서 고승호가 가라앉은 사건을 조사한다는 점, 일본이 항구를 보호하고 전쟁을 시작하려 하나, 청나라는 전투를 피하고, 북서쪽 즈푸(Che Foo: 현 연태)항으로 갔으며, 일본은 제푸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⁴⁷⁾ 9월 5일 자 『The Daily Cataract』에는 조선 내에서 일어난 경복궁점령사건과 갑오개혁에 대해 보도하였고,⁴⁸⁾ 일주일 후에는 워싱턴발 기사를 통하여 일본 공사관으로 받은 기록을 그대로 적시하였는데, 1894년 8월에 체결된 「조일동맹조약」에 관한 것이었다.⁴⁹⁾ 그리고 일본 내 청나라 사람들의 지위와 관련한 글을

46) “China And Japan At War” 『Watertown Times』 28 July 1894.

47) “The War” 『LockPort Daily Journal』 18 August 1894; “The Oriental War” 『The Daily Cataract』 August 18 1894.

48) “The Oriental War” 『The Daily Cataract』 September 5 1894.

49) 1. 청나라 군사를 조선 국경 밖으로 철퇴시키고 조선국의 독립(獨立)과 자주(自主)를 공고히 하며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누릴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2. 일본국이 청나라에 대한 공격과 방어 전쟁을 담당할 것을 승인했으므로, 군량을 미리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일에 돕고 편의를 제공하기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3. 이 동맹 조약은 청나라와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날에 가서 폐기한다 (김현철, 2015, 「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아시리뷰』 4-2, 100쪽; 『고종실

보도하였다.⁵⁰⁾ 같은 날 『LockPort Daily Journal』에서는 9월 20일 런던발 소식통을 인용, 뤼순항에 12척의 중국함대가 도착했다는 점, 압록강 입구에 6,000명을 실은 16척의 함대가 도착했다는 점과 일본 함대 10척이 압록강으로 접근하였다는 점 이와 함께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 『Part mall Gazette』, 『St. James』 등의 언론에서 코멘트를 보도했다.⁵¹⁾ 『The Mechanicville Mercury』에서는 평양 전투에서의 전황을 전했다.⁵²⁾

『The Daily Cataract』는 청일전쟁이 발발한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조선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보도하였으며, 조선이 ‘긴 머리를 자르라는(단발령)’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서도 보이듯 일본에 적대적이었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긴 머리를 자르라는 것’이 (일본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하며 왜곡 보도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의 일본 내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 아오키 일본 공사는 이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서태후가 자신 생일 축하 비용을 전쟁 비용으로 기부하였다는 점, 타임즈 보도를 인용하여 압록강 남쪽에서 중국 두 군함이 일본 함선의 공격에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 함대가 집결하여 항시 준비중이라는 점⁵³⁾ 등을 보도하였다.

11월 28일 크릴만은 이노우에의 기사를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내용에는 미국이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실질적 한국 독립의 책임자이며, 일본과 꺾 수 없는 친구라고 했다는 점을 보도하였다.⁵⁴⁾ 청일전쟁 관련 대대적 보도는 1895

록』 고종 31년 7월 20일; 22일).

50) “Corean-Japanese Treaty” 『The Daily Cataract』 September 5 1894.

51) “How Was It?” 『Lockport Daily Journal』 September 20 1894.

52) “Great Battle” 『The Mechanicville Mercury』 September 21 1894.

53) “Our Foreign Cables” 『The Daily Cataract』 September 24 1894.

년 9월 15일 『The Sun』에서의 보도였다. 여기에서는 커존(Curzon)의 “동아시아의 문제”와 주키치 이노우에의 “청일전쟁에 대한 간략사” 등을 통해 청일전쟁의 배경과 전개 등에 대해 광범위한 글을 실었다.⁵⁵⁾

1897년 5월에 보이는 청일전쟁 관련 보도는 배상금 문제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청나라 군대의 훈련을 돕고 전쟁 배상금 지불 연기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점을 전달했다.⁵⁶⁾

요컨대, 전쟁 발발 직전에는 청일 양국의 상황에 대한 보도를 상해와 요코하마로부터 각각 전달받아 기사를 게재하였고,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도하였다. 한국과 관련된 보도로는 초기 경복궁점령사건과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만,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식의 단순 보도가 많아 일본에 의해 근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청일전쟁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맺음말

뉴욕 언론에서는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해 여러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관련 기사를 내보냈던 뉴욕 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을 가장 많이 보도한 『The Sun』을 포함한 뉴욕 언론들은 한국 혹은 동아시아와 관련된 특별한 언론보도의 특징점은 찾기 어려웠다.

54) “England’s Uneasiness” 『The Evening world』 28 Nov 1894.

55) “The cause of the War between Them” 『The Sun』 15 Sep 1895.

56) “Japan favors China” 『The Ocean Herald』 27 Dec 1897.

둘째,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사의 특징을 살펴봤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들은 청일전쟁기와 러일전쟁기에 각각 보도되었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반란, 폭동 등의 단어로 묘사되었다. 청일전쟁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설명하였던 반면,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 1904년 4월에 가서야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소개와 전개과정을 보도하였는데, 이 역시도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시선으로 기사가 보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일전쟁 관련 기사의 특징을 살펴봤다. 청일전쟁 관련 기사는 동학농민혁명에 비해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초기에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사건을 소개하며 군대도 미약하고, 해군도 없는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고,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전황을 살펴보는 기사들이 주로 소개되었다. 기사의 작성 주로 상해와 요코하마발 기사들을 인용하였지만, 크릴만, 해세-바르텍 등 한국에서 직접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상황을 지켜보고 직접 기사를 작성한 이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 측에서는 크릴만 등 일부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정리하면, 청일전쟁기 뉴욕 언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았으며, 이를 반란 정도로 치부하였으며 긴 기사에서 보면, 학살, 약탈, 일본군 학살 등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은 “동학이 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 한 건을 내보냈을 뿐이었다. 관련 기사들은 모두 일본(요코하마) 청나라(상해) 통신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왜곡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투고일 : 2024. 9. 26.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11. 18.
--------------------	----------------------	-----------------

참고문헌

<자료>

『Buffalo Evening News』, 『Gouverneur Free Press』, 『Lockport Daily Journal』, 『Oneonta Daily Star』, 『Plattsburgh Daily Press』, 『Utica Daily Press』, 『The Argus』, 『The Brooklyn Daily Eagle』, 『The Daily Palladium』, 『The Evening Journal』, 『The Evening World』,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The Lockport Journal』, 『The Mechanicville Mercury』, 『The Ocean Herald』, 『The Ogdensburg Journal』, 『The Sun』, 『The Watertown Times』, 『The Utica Observer』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지음, 정현규 옮김, 2012, 『조선, 1894년 여름』, 책과함께.

<단행본>

문일평, 2016, 『한미오십년사』, 탐구당.

이민식, 1994, 「19세기 말 한미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논문>

김원모, 1974, 「美國의 對韓 居中調停(1882~1905)」, 『사학지』 8, 단국대학교 사학회, 19~67쪽.

김현철, 2002, 「청일전쟁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분석 -공사관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9~179쪽.

_____, 2015, 「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4-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91~132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483~533쪽.

_____,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동학학회, 175~210쪽.

이민식, 1992, 「미국의 對朝鮮 親日政策의 출현 -청일전쟁기를 중심으로」, 『사총』 40-41합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9~110쪽.

홍종규, 2023, 「미국 신문의 조선에 대한 인식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임오군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9~183쪽.

_____, 김남현, 2018, 「19세기(1810~1871) 미국 뉴욕 언론을 통해 본 조선의 이미 지」, 『강원사학』 31, 강원사학회, 137~163쪽.

〈Abstract〉

Observations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in the U.S.

- Focusing on the New York Press's Coverage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

Chang, Kyoung Ho*

This paper examines the New York newspapers' coverage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to see how the two events were viewed by the American Newspapers. At the time, the U.S. State Department did not have much awareness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only considered it a rebellion or riot. However, New York newspapers reported a total of 24 stories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 The Sun, which was founded in 1833, reporting the most. With the exception of James Crillman and Ernst von Hesse of Austria, the authors are unknown, but in general, the Sun's perception of Donghak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State Department. The Sun's April 10, 1904, report on Donghak stated, "Donghak looted the villagers and killed the Japanese," a distorted perception.

21 articles related to the Sino-Japanese War are identified. Prior to the war, the newspapers mostly reported on diplomatic relations, but when the war began, there were many articles reporting on the battlefield. In general, the articles from Yokohama were positive about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Japan, while the articles from Shanghai were positive about the Qing Dynasty.

Key word : Donghak Revolution, Sino-Japanese War, Rebellion, Riot,
New York Press, The Sun

